

## 茶山先生과 現代와의關係

安浩相

茶山先生이 어찌하여 偉大하며 또 어떠한 偉大하다는 것은 數年前先生의 逝世百年記念時에 이미 여러 先輩들의 말과 붓을 通하여 紹介되었을 뿐 아니라 先生의 불후 遺著가 日前各紙의 報道와 같이 全部四百部七十六卷으로서 完成되었다는것만 보드래도 能히 알 수 있다. 先生을 評할때에 어떤 이는 先生을 才高하며 博學한 어른이라 함에 反하여 또 어떤 이는 先生을 憂國之士라고 評하는이가 적지아니하나 그러나 이것은 모다 評者各個人의

主觀的立場이오. 先生의 全體를 代表하는 視察은 아니라고 할 수밖에 없다. 先生은 才高博學할 뿐 아니라 다시 憂國之士가 兼한 어른이다. 毋論 先生이 政治經濟, 法律, 農業, 醫學, 등 卽 利用厚生の 學問에도 心血을 기우려 研究한 結果 各領域에 있어서 獨特한 創見을 갖은 이로서 實學派의 中心人物이나 先生이 결코 理論을 絕對排斥하거나 혹은 理論이 全然不足하였던것은 아니다. 그것은 先生의 根本的 思想이 그러하였을뿐 아니라 先生의 名著가 如實히 證明하고 있던 바이다. 特히 先生의 中庸目□及講義와 또는 先生의 周易心箋과 易學緒言을 본다면 先生의 周密한 考證과 엄밀한 理論은 누구보다 손색이 없음을 알 수 있다. 先生은 결코 理論을 拒否하며 또 理論이 없는 實學派가 아니라 全的으로 엄밀한 理論에 입각한 實學派이다. 先生을 흔히 理論의 反動이라고 評하지마는 그것은 正鵠을 일허버린 評이라 아니 할 수 없다. 先生은 결코 참된

理論의 反動이 아니라 오히려 그 當時에 理論을 實踐으로부터 孤立시켜 理論의 抽象化를 일삼는 因襲的 理論家에 對한 反動이 었었다. 先生은 그 所謂抽象的 理論家の 反動者로서 참된 理論의 實踐家이어엇었다. 先生은 理論의 目標를 恒常實踐에 두엇섯기 때문에 先生의 慧智와 情熱은 安息의 過去에 歸依하려하지 아니하고 不安의 現實과 또 將次을 未來로만 向하였다.

한 社會의 歷史가 轉換함을 따라 그 社會의 學問의 潮流가 또한 變하는 것은 必然的 現象이다. 歷史의 變遷은 歷史의 不變의 眞理다. 이 眞理를 超越할 社會는 아무데도 存在할 수 없다. 그리하여 이 江山이 또한 이 眞理에

服從아니할수 없게 되었다. 해수는 벌써 이로부터 約三百四十餘年前宣祖二十五年 壬辰年이 었다. 이 壬辰亂을 겪고 난 後 國事의 蹙縮과 民心의 安定이 아직 되지 못함에 不拘하고 다시 雪上加霜으로

丙子胡亂이 덩치게 되었으니 國情의 岌岌과 民心의 不安은 더할 수 없이 極度에 達하게 되었었다. 그때의 民衆에겐 健全한 人生觀과 새로운 生活法이 切實히 必要하였던 것이다 人民에 새 生活法을 베풀러 塗炭의 渦中으로부터 救出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그 當時의 指導層이었던 一般學者들은 모다 同感일 것이다. 그러나 그것을 痛感하고 憤然히 일어나 實踐에로 옮긴이가 곧 磻溪柳馨遠先生이다. 이미 數百年을 내려오면서 천대받아 全혀 황무지가 되다 싶이한 實科의 學問이 비로소 磻溪先生의 손을 通해서 開拓하기 始作하였다. 先生은 孔孟의 聖學만이 아니라 道釋의 異端說에까지 通하였으며 또 法律經濟에만이 아니라 天文 地理 醫學卜筮에까지 能하였다. 이 磻溪先生을 先鋒으로 한 實學派는 다시 星湖李瀾先生에 이르러서 偉大한 發展을보았다가 마침내 茶山先生에 이르러 完成을 보게 되었다.

先生의 觀察은 廣汎하면서 深遠하며 또 先生의 體系는 綜合的이면서도 折衷式은 아니다. 비록 在來의 여러學者의 一般추향은

性理方面이 었지마는 선생은 그것의 不全性和 不及性을 看破한 後 다시 實利의 學問을 添加시켜 學問의 全體를 빛나게 하는 同時에 人間의 現實生活을 開拓케 하였다. 만일 儒學이 實際를 따라 一種의 抽象的 理論에 不過한 것이라면 그것은 自己의 存在權을 상실한지가 이미 오래일 것이다. 그러므로 先生의 實學運動은 결코 儒學의 邪路이거나 透縮이 아니라 도리어 儒學의 正路며 發展인 것이다.

先生은 그 當時의 一國의 動態와 世界의 潮流를 如實하게 認識하였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先生은 百年의 뒷일을 確乎히 推測하였던 것이다. 歷史의 수레바퀴는 固定한 位置에 머물러 있지 안코 不斷히 굴러가는 過程에 있어 全然 對立의 矛盾에로 옮겨가는 일이 非一非再하여 先生의 慧眼은 벌써 그때 그 當時가 正히 東洋과 또 그로 因하여 朝鮮의 歷史에 一大轉換期가 始作되리라는것을 先覺하였던 것이다. 지낸 歷史는 單純히 죽은 過去만 되지 말고 將次을 歷史의 새 地盤이 되며 또

未來의 歷史는 孤立한 한조각의 斷片이 아니라 過去史의 새 形態라. 새 發展이 되어 歷史의 全幅을 完成하려면 묵은 것에 對한 盲目的 服從과 또 새 것에 對한 無批判的 吸收는 絶大禁物인 것이다.

때마침 朝鮮歷史의 危機에 處한 先生은 남보다 뛰어나게 內外의 動態를 주밀하게 把握하고 이미 傳해오든 精神과 또 새로 밀려오는 思潮를 오직 矛

盾對立된것으로만 放任하지 아니 하였다. 先生은 그 當時의 國學格이었던 儒教外에 다시 그때의 “邪學”으로 指摘된 天主教이 理致까지 深讀翫味하였다. 그리하여 先生은 東洋學으로서 人間內生活의 眞實을 卍하였다며 또 西洋學으로서 人間外生活의 豊富를 卍하였다. 東洋學으로 體를 삼고 西洋學으로 用을 삼아 이 體用이 兼備하여야만 朝鮮의 民衆 아니 世界人類의 理想的 生活이 實現될 것을 예기 하였었다. 不幸히 後人은 先生의 이 壯志와 偉業을 繼承發展하지못하였다.

그러나 先生이 우리 現代人에게 끼쳐준

課題와 業績은 결코 過去의 것이 아니라 도리어 現代와 또 未來에 永遠히 生動하고 잇을 것이다. 만일우리가 넘어진 집과 무너진 탑을 다시 지으며 싸흐려면 반드시 茶山先生의 東西學의 統一의 精神과 業績을 復活發展하는데 잇을 것이다. =끝=